『聊齋志異』 속의 「嬰寧」을 통해서 본 蒲松齡이 추구하는 理想的 여성

- 양성관계를 통해서 본 『聊齋志異』 속의 여성과 嬰寧 -

최병규*

〈차 례〉

1. 머리말
2. 양성관계로 본 『요재지이』 속의 여성
3. 『요재지이』 속에 묘사된 영녕의 형상
4. 결어

【국문초록】

본 고는 우선 양성관계를 통해 본 『요재지이』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남녀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영녕」이라는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 영녕의 형상을 심미적으로 분석하며, 포송령이 왜 그렇게도 영녕을 높이 평가한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요재지이, 영녕, 포송령, 양성관계, 남녀관계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영녕은『聊齋志異』속에 등장하는 여인이자 동시에『요재지이』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들 가운데 한 편의 작품명이기도 하다. 작자 포송령은 이「영녕」이란 작품에서 500편이나 되는 다른 작품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유일하게도 이 작품의 말미에 있는 評에서 "나의 영녕(我嬰寧[1])"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영녕'이라는 여성은 포송령의 작품『요재지이』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유례없이 "나의"라는 호칭을 사용한 유일한 여성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聊齋志異』평론가들도 지적하였듯이[2] 이 "나의"라는 말은 바로 이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애착과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100편 가량의『요재지이』애정소설 작품[3] 가운데에서만도 青鳳、小梅、聶小倩、葛巾、香玉、俠女 등등 개성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들이 얼마든지 많으나 작자 포송령의 영녕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더욱 특별한 듯하다. 다시 말해 작가 포송령에게 있어 이 영녕이라는 여성은 작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신의 이상적인 여자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영녕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고는 우선『요재지이』속의 양성관계를 통해 본『요재지이』속의 여성들의 일반적인 형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그와 구별되는『요재지이』속 영녕만의 특질 내지는 매력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

1) "我嬰寧殆隱於笑者矣."-『聊齋志異』(臺灣 大衆書局, 1981), p. 43.

2) "蒲松齡在異史氏曰中直呼作品中的主人公爲我嬰寧, 這是唯一的, 可見蒲松齡對這一人物的喜愛." -于天池,『中國文言小說叢論』(寧夏人民出版社, 1994), p. 185, 또 盛瑞裕,『解讀聊齋志異』(臺灣 雲龍出版社, 2000), p. 31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3) 張稔穰,『聊齋志異藝術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5), p. 241.

접근하고자 한다.

2. 양성관계로 본 『요재지이』 속의 여성

포송령에 의해 묘사된 『요재지이』 속의 남녀관계는 중국의 고전 소설들이 대개 그러하듯 대체적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유가적 도덕규범을 의식하여 남녀간의 절제와 정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요재지이』 속의 대표작에 속하는 「聶小倩」이나 「阿寶」와 같은 작품들에서도 이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청순하고 가련한 여귀신 聶小倩은 남주인공인 寧采臣의 인품에 반해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흠모하여 밤마다 늘 그를 찾아와 등불 아래에서 함께 글을 읽으며 다정한 오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곤 하나 두 사람은 나중에 녕채신의 부인이 죽어 그녀가 정식으로 그의 아내가 되기까지 다만 순수한 오누이의 관계를 유지한 체, 결코 남녀간에 지켜야할 선을 벗어난 행위는 하지 않았다.

> 또 앉아 말없는 가운데 이경이 넘어도 (섭소천은)갈 생각을 않는다. 녕채신이 그녀를 재촉하자 그녀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저는 의지할 데도 없는 외로운 귀신이라 황량한 무덤가로 가긴 정말 무서워요." 그러자 녕채신은 "서재에 침대도 하나 밖에 없는데다 오누이 간에 지킬 예의를 지켜야죠."했다. 그녀는 일어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눈에 선 금방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다. 억지로 돌아서 조용히 나가더니 계단을 지나 사라져버렸다. 녕채신은 그녀를 가엽게 여겨 다른 침상에다 자도록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를 나무랄까 두려웠던 것이다.(又坐，默然，二更向盡，不言去。宁促之。愀然曰："异域孤魂，殊怯荒墓。"宁曰："齋中別无床寢，且兄妹亦宜遠嫌。"女起，顰蹙欲啼，足侻儴而懶步，從容出門，涉階而沒。宁窃怜之，欲留宿別榻，又惧母嗔。[4])

4) 앞의 책, 『聊齋志異』, pp. 46-47.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녕채신도 섭소천과 같이 그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있었으나 끝까지 남녀간의 예법을 지키며 결코 그녀를 留宿하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연모의 정을 품고서도 절제와 법도를 지키며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두 사람을 통해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阿寶」에서도 순진한 청년 孫子楚가 이웃 마을의 처녀인 아보를 몰래 짝사랑하지만 용기가 없어 다가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몇 번이나 상사병으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그의 정성에 아보도 감동하게 되어 두 사람은 꿈속에서 영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기까지 이 작품은 남녀간의 관계를 전통적인 필법으로 절제의 선을 지키며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다. 포송령은 이 작품에서 당시 경박스러운 청년들의 개방적인 남녀관계와는 달리 순수함과 수줍음으로 이성을 대하는 손자초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높이 사고 있다.

> 광서 지방의 손자초는 명사로 손가락이 육손이었다. 성격이 아둔하고 말도 어눌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는 종종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다. 연회석에서 기녀들과 부딪히게 되면 그는 멀찌감치 달아나버렸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유인하여 기녀들로 하여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희롱하면 그는 곧 얼굴과 목이 발개지며 진땀을 주룩주룩 흘리곤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비웃었다.(粵西孫子楚，名士也。生有枝指。性迂訥，人誑之，輒信爲眞。或値座有歌妓，則必遙望却走。或知其然，誘之來，使妓狎逼之，則赤顔徹頸，汁珠珠下滴，因共爲笑。[5])

인용문에서 표면적으로는 여색을 멀리하는 손자초의 행동을 바보스러운 웃음거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작자는 그런 손자초의 행동을 동정과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

5)『聊齋志異』, p. 68.

그가 비록 세인의 지탄은 받을지언정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임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또 비록 아보에 대한 손자초의 연모는 단순히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넋이 빠진 것으로 그 사상적 깊이는 높지 않지만, 그녀를 위해 손가락을 끊고 혼이 빠져나가고 결국 앵무새로 변화되어[6] 그녀와 꿈속에서 정신적인 神交를 나누는 일련의 癡情적인 과정을 통해 작가는 아보에 대한 손자초의 사랑을 매우 전통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 포송령은 50여년간의 훈장생활의 경력이 말해주듯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법도와 정조관념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명말청초의 主情主義와 縱慾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비껴갈 수 없었던 까닭으로 당시의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남녀관계와 정욕을 정당시하고자하는 사회풍조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7] 『요재지이』 속의 남녀관계와 여성들에 대해 장임양은 다음과 같이 애기하고 있다.

> 『요재지이』 애정고사 속의 여자는 현실 속의 여자들도 있지만 선녀나 귀신, 그리고 여우와 같은 환상 속의 여자들이 더 많다. 이 두 부류의 여성들은 혼인과 애정문제에 있어 전자가 피동적이라면 후자는 거의 주동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하며 심지어 자청하여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국봉건사회 현실생활 속의 여성들은 예교의 속박으로 이런 문제에서 피동적이나 오직 환상 속의 그녀들만은 개방적이다. 작가가 이런 비현실적인 여성들을 묘사한 중요한 원인은 환상 속에서나마 가난한 선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것이다. 작가는 그녀들에게 선량하고 아름다운 인성과 반전통적이고 반예교적인 정신, 그리고 티끌세상 속에서 영웅을 알아보는 혜안을 부여하였다.(聊齋志異愛情故事中

---

6) "孫生的斷脂、離魂、化鳥來求阿寶, 不過慕阿寶的娟麗無雙, 不過愛色, 思想並不高." -何滿子、李時人, 『明淸小說鑑賞辭典』, 浙江古籍出版社, p. 1208.

7) 포송령은 李贄를 선두로 하여 湯顯祖, 袁宏道, 馮夢龍 등으로 이어지는 명말의 주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앞의 책 『中國文言小說叢論』, pp. 189-190.

> 的女子一方, 有現實中的女子, 但更多的是幻想中的仙女、鬼女、狐女等. 兩類女子在婚姻愛情關係中的表現大不相同; 前者沒有一個是處於主動地位的, 而後者幾乎全是主動出現在男子面前, 主動接近男子, 甚至是自薦枕席. 我國封建社會現實生活中的女子, 受種種禮教的約束, 多是婚姻愛情的被動接受者; 只有幻想中的仙女、鬼女、狐女們, 才可以任性而爲. 作者何以寫了那麼多的非現實的女子, 一個重要的原因就是爲了更好地在幻像中滿足才子、寒士們的心理需求. 作者賦與他們善良美好的人性, 反傳統反禮教的精神, 識英雄於塵埃的慧眼.[8])

『요재지이』 속의 애정고사들이 주로 인간인 남주인공과 인간이 아닌 이런 환상 속의 異類 여성들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까닭에[9] 일반적으로 『요재지이』 애정고사 속의 여주인공들은 위의 인용문에서도 지적한대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지님과 동시에 인간세상의 여성들과는 달리 반전통적이고 반예교적인 면들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여주인공들은 아름다운 심성을 지니고 있을지언정 중국의 전통적인 '婦道'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관계가 너무 개방적이라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그런 까닭에 위 인용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녀들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면 무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욕정을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10] 『요재지이』권3의

---

8) 장임양, 앞의 책, p. 245.

9) 장임양, 앞의 책, pp. 241-242에는 『요재지이』 애정고사속의 남녀 주인공들의 신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인 남자와 비인간류인 여성들이고, 둘째는 남녀 모두가 인간인 경우이고, 셋째는 남녀 모두가 비인간류인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째의 조합이 특히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葉慶炳도 「魏晉南北朝的鬼小說與小說鬼」(『臺灣中國古代文學研究文選』, 인민대학출판사 1988년판에 수록.)에서 위진남북조 애정고사 속의 여주인공은 반드시 귀신이고 남주인공은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였으며, 반대로 남자 귀신과 여자 인간의 조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소설의 작자가 모두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0) 물론 여기에는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화심리와 작가가 정신적으로나마 외

「香玉」에서도 향옥은 黃生의 구애에 감동하여 주동적으로 그를 찾아와 잠자리를 같이 나누게 되고, 『요재지이』권2의 「蓮香」에서도 남주인공 桑曉에게 연향은 스스로 육체를 제공한다. 이런 개방적인 양성관계의 예는 「翩翩」, 「嫦娥」, 「靑鳳」 등의 名篇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편편」에서 부자집 도령인 나생이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중병까지 얻어 길거리의 거지로 전락하였을 때, 마음씨 착한 선녀인 편편은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거두어주게 된다. 그리고 계곡의 물로 약을 만들어 그의 병을 고쳐주고, 나뭇잎을 모아 엮어 비단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도록 해주었으며, 나생은 결국 그녀에게 감화되어 올바른 길을 걷게 되어 나중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이런 선량한 편편의 이미지도 남녀간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정조적 관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며칠 후에 나생의 병이 완쾌되자 그는 편편에게 구애를 하였다. 편편은 "왜 이렇게 경박하게 구시나요! 이제 막 안정을 얻게 되니 잡생각이 나는가 보죠." 하였다. 나생이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 라고 하자 그녀는 허락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즐거운 잠자리를 가졌다.(數日瘡痂盡脫，就女求宿。女曰："輕薄儿！甫能安身，便生妄想！"生云："聊以報德。"遂同臥處，大相歡愛。[11])

이런 다소 헤픈 듯한 여성의 모습은 「청봉」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그녀는 가는 허리의 가냘픈 몸매에 눈은 지혜로 넘치는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으로 묘사된 여우 요정이다. 숙부와 숙모의 부름에 응해 그들과 함께 모여 앉아 처음으로 남주인공인 耿去病

로운 선비들의 욕구를 풀어주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 石育良, 『怪異世界的建構』(文津출판사, 1996), p. 148.

11) 앞의 책, 『聊齋志異』, pp. 263.

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 경거병은 얘기를 마치고 술을 마시며 눈으로는 계속하여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몰래 그녀의 발을 밟자 여자는 발을 얼른 빼면서도 화를 내지는 않았다.(生談竟而飮, 瞻顧女郎, 停睇不轉。女覺之, 輒俯其首。生隱躡蓮鉤, 女急斂足, 亦无慍怒.[12])

남녀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어른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경거병이 취한 경박한 행동도 개방적이지만 그런 경거병의 추파에 놀라며 화내지 않는 소녀 청봉의 태도 또한 정조관념을 고수하는 전통적 여성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청봉의 태도를 일찌감치 알았는지 경거병은 더욱 그녀에게 다가가게 된다.

> 경거병은 문 입구에서 꿇어앉아 말했다. "제가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것도 모두 당신을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없고, 저도 당신에게 다른 요구가 없으며, 다만 손만 잡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청봉은 "당신의 깊은 정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만 제 숙부의 가르침이 엄하니 당신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했다. 경거병은 "당신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을 터이니 한번 보여주기만 해주오."라며 간절히 애걸하였다. 여자는 동의를 했는지 문을 열고 나와서는 경거병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그녀를 번쩍 안아 아래층까지 내려와 다시 여자를 무릎 위에다 앉혔다.(生長跽而致詞曰 : "小生不避險惡, 實以卿故。幸无他人, 得一握手爲笑, 死不憾耳。"女遙語曰 : "惓惓深情, 妾豈不知？但叔閨訓嚴, 不敢奉命。"生固哀之, 云 : "亦不敢望肌膚之親, 但一見顔色足矣。"女似肯可, 啓關出, 捉之臂而曳之。生狂喜, 相將入樓下, 擁而加諸膝。[13])

---

12) 위의 책, p. 26.
13)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이처럼 『요재지이』 속 귀녀여성과 인간남성간의 남녀관계는 비록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의식하여 남녀간의 정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있는 반면에 남성의 요구에 여성이 언제나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끌려가거나 아니면 여성이 주동이 되어 스스로 남성에게 몸을 바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향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런 남성주의적 의도로 인해 적지 않은 『요재지이』 속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귀녀들의 모습이 마치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 내지는 분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으로 선량하고 열정적이며 귀여운 그녀들의 아름다운 형상도 어쩐지 헤픈 기녀들과 같은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다.

3. 『요재지이』 속에 묘사된 영녕의 형상

『요재지이』 속의 영녕의 형상은 우선 그 운명부터 무척이나 애처롭다. 영녕의 부친은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 王子服의 이모부이고, 그녀의 엄마는 여우요정이라 그녀는 바로 사람과 여우가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다. 영녕은 어려서 부친을 여읜 후에 모녀 두 사람은 진씨 집안에서 부른 주술사가 사용한 부적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그 여우인 엄마도 개가를 하게 되면서 영녕은 왕자복의 이모인 성밖의 남산에 매장된 鬼母에 의해 키워졌다. 이처럼 '포송령의 여인' 영녕은 우선 그 운명부터 매우 가련하여 사람의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앞장에서 거론한 귀녀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영녕이 지닌 가장 차별적인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남녀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함을 넘어 성스럽기까지 한 순결한 숫처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왕자복은 그녀가 웃음을 멈추길 기다렸다가 소매 안에 있는 꽃을

꺼내 보여 주었다. 여자는 “시들었네. 왜 아직 갖고 있어요?” 했다. “그 꽃은 상원절에 누이가 떨어트린 것이기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누이를 사랑하여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상원절에 만든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도 상사병이 날 정도였어요. 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도 오늘 누이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바라건대 날 불쌍히 여겨 주오.” 여자는 이 말에 “뭘요! 친척 사인데 뭘 아끼겠어요. 오빠가 집에 돌아갈 때에 아줌마를 시켜 동산에 있는 꽃들을 아주 큰 한 묶음으로 따서 드릴게요.”했다. “누이는 참 바보 같아!” 그의 말에 그녀는 “왜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했다. “나는 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꺾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여자는 그 말에 “친척 사이이니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죠!”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친척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오.” 여자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하였고, 그는 “부부간의 사랑은 밤에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오!”라고 말했고, 여자는 잠시 머리를 숙여 말없이 생각하더니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자는 것이 싫어요.”라고 하였다.(生俟其笑歇，乃出袖中花示之。　女接之，曰：“枯矣！何留之？”曰：“此上元妹子所遺，故存之”問：“存之何益？”曰：“以示相愛不忘。自上元相遇，凝思成病，自分化爲异物；不圖得見顔色，幸垂怜憫”女曰：“此大細事，至戚何所靳惜？待郎行時，園中花，当喚老奴來，折一巨捆負送之”生曰：“妹子痴耶？”女曰：“何便是痴？”生曰：“我非愛花，愛拈花之人耳”女曰：“葭莩之情，愛何待言”生曰：“我所爲愛，非瓜葛之愛，乃夫妻之愛”女曰：“有以异乎？”曰：“夜共枕席耳”女俯首思良久，曰：“我不慣与生人睡”.)

인용문에서 보듯 영녕은 정말 남녀관계에 있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직 남자를 접촉한 적도 남자를 연모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숫처녀 그 자체를 넘어 오히려 동심의 세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한 어린애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녀간의 戀情이나 사사로운 情愛에 대해서도 無知에 가까울 만큼 무감각하고 둔하게 보인다. 이런 순진무구한 여아의 모습은 앞 장에서 언급한 다정하고 열정적이며 남성의 요구에 언제나 응하는 여러 귀녀들의

이미지와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남자와 언제든지 '쉽게' 정을 통하는 『요재지이』 속의 '연애고수'인 귀녀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녕은 性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처녀성이 강조된 인물이다. 인용문에서 나온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자는 것이 싫어요."라는 말은 바로 영녕이 지닌 처녀성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잘 표현한 대목이며, 『요재지이』 속의 다른 귀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영녕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 말이다.

그 다음으로 그녀의 특징은 언제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하고 착해 늘 웃음을 잘 짓는 천진난만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보듯 영녕의 웃음이 단순히 명랑하고 쾌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웃음 속에는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와 眞情의 미학, 그리고 어른과는 달리 예법을 무시하는 어린아이들의 質朴한 삶과 아름다운 인성미에 대한 작자의 동경이 함께 내재되어있다.

노파가 "영녕 아씨를 불러 오너라" 했다. 좀 시간이 지나자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노파는 "네 이종 사촌 오빠가 여기 있다." 했다. 그래도 문밖에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계집종이 그녀를 문 안으로 밀어도 그녀는 여전히 입을 막고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노파는 화를 냈다. "손님이 왔는데도 '히히하하' 그 무슨 버릇이냐!" 그러자 그녀는 억지로 참으며 한 쪽에 섰다. 왕자복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였다. 노파는 또 "왕도령은 네 이모의 아들이야, 한 집안인데도 서로 모르니 우스운 일이구나!" 했다. 왕자복이 물었다. "동생은 몇 살이에요?" 노파가 알아듣지 못해 왕자복은 거듭 말하자 소녀는 또 허리를 굽히고 웃어댔다. 노파는 "저것 봐요! 내가 교육을 못 시켰다고 하지 않았소! 올해 16살인데도 전혀 철이 들지 않았어. 아직 어린 아이와 똑같아!" 하였다. (媼曰 : "喚宁姑來"婢應去良久, 聞戶外隱有笑聲. 媼又喚曰 : "嬰宁, 汝姨兄在此"戶外嗤嗤笑不已. 婢推之以入, 犹掩其口, 笑不可遏. 媼逋目曰 : "有客在, 咤咤叱叱, 是何景象？"女忍笑而立, 生揖之. 媼曰 : "此王郎, 汝姨子. 一家尙不相識, 可笑人也"生問 : "妹子年几

何矣？”媪未能解；生又言之. 女夏笑，不可仰視. 媪謂生曰：“我言少教誨，此可見矣. 年已十六，呆痴如嬰儿”[14])

이처럼 영녕은 그 천성이 발랄하고 명랑쾌활한데다 어린아이 같이 잘 웃고 덤벙대는 스타일로서 법도에 얽매이는 조신한 성격의 전통적인 여인상이 절대 아니다. 거기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천진스러움과 순수함까지 지닌 여성이다. 작가 포송령의 고향이 중국 북방 산동성이라 그는 아마도 자신의 주변에서 보아온 중국 북방 여성의 한 전형을 그려낸 듯하다. 즉 그녀는 중국 북방여성 특유의 활달함과 호방함이 베여있는데다 천성적으로 구속을 싫어해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여성이다. 어린애와 같은 순수함과 장난기로 똘똘 뭉쳐져 있으며, 생기 넘치는 활발함으로 언제나 적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포송령은 이 소설의 마지막 自評에서도 말하였듯이 그녀는 결코 지능이 낮은 바보 같은 무지하고 모자란 여자가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평왈: 그녀가 바보같이 웃는 것을 보면 마치 속이 없는 숙맥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을 희롱하던 이웃 집 남자를 골려주던 것을 보면 총명함이 출중하다. 또 죽은 모친을 그리워하여 웃음이 아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영녕은 사실상 바보스러운 여자가 절대 아니다.(異史氏說: 看她孜孜的憨笑, 好像全無心肝. 然而墻下惡作劇, 聰慧過人. 至於凄戀鬼母, 反笑爲哭, 嬰寧實在不憨.[15])

요컨대 작자 포송령의 붓 아래 묘사된 영녕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늘상 웃음을 지어 유가적인 예법도 남녀간의 사리도 모르는 그야말로 천치 같은 촌뜨기 여자로 보일지언정 사실은 그러한 것

14) 앞의 책,『聊齋志異』, p. 40.
15) 蕭艾 等譯,『白話聊齋』(長沙 岳麓書社, 1998), p. 62.

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순박하고 천진난만하며 질박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인성미를 지닌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론 사회적 예법이라는 精緻하고 근엄한 가식과 기만의 틀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풍자이자 '童心'을 지닌 '眞人'으로 '天眞'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찬미이며, 이는 곧 작가의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인성을 추구하는 심미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16)

마지막으로 영녕의 특성은 앞에서 거론한 순수한 처녀성과 天眞한 본성과 함께 태고적 원시적인 신비스러운 매력을 지닌 여성이라고 하겠다. 포송령은 마치 진실함과 총명함을 바보 같은 질박한 웃음 속에 감추고 사는 듯한 이 천진하고 순수한 처녀가 살고 있는 환경이 첩첩산중에 온갖 꽃들이 나무들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인적이 아주 드문 산골이라고 묘사하여 마치 처녀림에서 살아가는 신비한 여신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순박한 심성은 바로 이런 대자연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런 태고적 환경은 그녀의 형상을 더욱 성스럽고 신비스럽게까지 만든다.

> 산들이 첩첩히 들어서 주위가 온통 푸른 녹음이었는데, 고요하여 새들의 자취만 있고, 사람의 인적은 전혀 없었다. 멀리 산골짜기 아래 꽃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 속에 희미하게 한 촌락이 보였다. 산을 내려가 들어서니 집채들은 보이질 않고 모두가 띠 풀로 엮은 茅屋들만 보였지만 그 또한 매우 깔끔하고 운치가 있었다. 북으로 난 한 집으로 가보니 문 앞엔 모두가 가는 버드나무로 드리워져 있었고, 집 담 안에는 복숭아와 살구나무가 무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는 대나무도 보였

16) 聊齋志異所表現出來的審美理想和蒲松齡在詩文中對人物的評價是完全一致的, 所追求的同樣是眞人, 是童心, 他所鄙棄和抨擊的依然是虛僞和詭詐. 可以毫不懷疑地斷定: 蒲松齡的審美理想就是純朴天眞的人性, 就是眞.- 앞의 책『中國文言小說叢論』, p. 188.

다. 산새들이 그 속에서 찍찍 놀고 있었다.(亂山合沓，空翠爽肌、寂无人行，止有鳥道。遙望谷底叢花亂樹中，隱隱有小里落。下山入村，見舍宇无多，皆茅屋，而意甚修雅。北向一家，門前皆絲柳，墻內桃杏尤繁，間以修竹，野鳥格磔其中。17))

영녕이 사는 곳은 이처럼 마치 무릉도원인 듯, 대자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세속의 그 어떤 소음이나 간섭이 전혀 없는 幽靜한 곳처럼 느껴진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소설의 작자가 인간 본래의 진실한 대자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른바 '返璞歸眞'의 경지를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복잡한 사회나 세속이 얼마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말살시키는 것인지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음도 유추해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포송령이 묘사해낸 영녕은 맑고 깨끗해 인간세상의 그 어떤 인위적인 구속과 때도 끼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신비하여 신성불가침적인 자연미인 내지는 여신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영녕을 통해 표현된 포송령의 이런 심미관은 李贄가 '童心說'을 통해 주장하던 그런 사상과도 실제 일맥상통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심이 바로 진심이고 동심을 잃게 되면 진심을 잃게 되며 진심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동심이 없는 문학 또한 眞情이 없는 죽은 문학이라는18) 이지의 이런 동심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예교의 구속을 벗어나 인간의 자연적이고 순수한 정과 마음의 세계를 높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녕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봉건 예교를 초월한 무지에 가까운 순수한 인성미에 대한 찬미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영혼도 시어머니의 훈계와 주위의

17) 앞의 책,『聊齋志異』, p. 39.

18) "童心者, 眞心也. ... 若失却童心, 便失却眞心, 失却眞心, 便失却眞人."- 鄢烈山 등,『李贄傳』(北京 時事出版社, 2000), p. 157.

환경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는 웃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의 '헤픈' 웃음을 오해한 한 남성이 그녀를 유혹하려고 하자 영녕이 그를 골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자는 결국 죽고 말았고, 그의 부친은 그녀를 관아에 고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다행이 현감은 남편인 왕자복의 품행을 믿어 그녀를 무고로 판정을 내리지만 그 후로 왕자복의 모친은 그녀에게 이른바 '婦德'에 대해 크게 훈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영녕은 누군가가 일부러 웃겨도 결코 웃는 일이 없게 되고 말았다고 작품은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 포송령은 외부의 예법과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아름다운 내적인 인성미를 얼마나 잔혹하게 유린하게 되는 지도 매우 선명하게 호소하고 있다.

4. 결어

『요재지이』 속의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포송령이 유독 영녕이라는 여성에게만 '나의'라는 말을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이는 일부 『요재지이』 연구자들도 지적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영녕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특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영녕은 실로 포송령의 심미적 이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인물일 뿐 아니라 포송령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까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평생 평범한 훈장으로 삶을 마감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다할 '로맨스'를 경험한 적도 거의 없는[19] 포송령이 의외로 『요재지이』 속에서 수많은 유형의 반전통적이고 개방적인 자유분방한 여성들을 그려내어 남녀관계에 대한 기

19) 포송령의 일생을 통해 그가 부인 외에 경험한 유일한 여성은 顧青霞라는 기생이었을 뿐이다. -于天池, 「蒲松齡與聊齋志異」-앞의 책 『中國文言小說叢論』, p. 68.

상천외한 개방적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20]와 孤憤[21], 그리고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遊戱와 自慰적 동기 등등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개방적인 여성들은 포송령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경하는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요재지이』 속에서 포송령은 비록 종종 전통적인 正道와 법도를 벗어난 반전통적인 면을 부르짖기도 하였지만[22] 『요재지이』 속에 나타난 성의식을 보더라도 포송령은 당시 방종한 사대부나 귀족자제들의 동성애와 같은 성적 방종을 포함한 종욕적인 행위에 대해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듯[23] 사상적으로 그는 예의염치를 중시하는 중국 전통문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24] 따라서 포송령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

20) “蓋傳奇風韻, 明末實彌漫天下, 至易代不改也. 而專集之最有名者爲蒲松齡之聊齋志異.”- 魯迅『中國小說史略』(臺灣 谷風出版社 1987), p. 218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명말에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문인들이 주위의 신선한 신변잡기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를 좋아했다. 뿐 아니라 명말의 縱欲적이고 주정주의적 사회분위기도 이 소설이 등장하는데 한몫을 하였다고 하겠다.

21) “作者的創作態度是嚴肅的.「聊齋自志」說: 集腋爲裘, 妄續幽冥之錄, 浮白載筆, 僅成孤憤之書, 寄託如此, 亦足悲矣.”- 張俊,沈治鈞,『清代小說簡史(上)』, 遼寧教育出版社, 1992, p. 93.

22) “在聊齋裏, 蒲松齡不僅直言無忌地抨擊社會上的種種罪惡與黑暗, ... 而且在思想上時常背離了傳統正道, 他甚至敢於同聖人開玩笑, 敢於向公認的道德法則挑戰.-何天傑,『聊齋的幻幻眞眞』(江蘇古籍出版社, 1995), pp. 3-4.

23) 최병규,「요재지이 속의 성」(중어중문학, 2008.12), p. 318.

24) 사실 포송령은『요재지이』를 통해 남녀관계의 예법문제에 있어 정과 예에서 다소 방황하거나 남성위주의 편협된 남녀불평등 사상을 표출하거나 하여 여러 면에서 모순되고 낙후된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그의 진면모를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寧莉莉도「聊齋志異中的愛情故事與古代文人心態」(『蒲松齡研究』, 2008年 第1期)라는 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于是《聊斋志异》就出现了过人的才华和矛盾的心态之间的奇怪结合。只有理解了这一点,我们才能对『聊斋志异』有一个全面、客观的评价。”

서 자신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여인상도 그의 작품 속에 무수히 표현된 개방적이고 헤픈 면을 지닌 그런 발랄한 여성들이 아니라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동심을 지닌 순진무구한 처녀 영녕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사료된다.

참고문헌

최병규, 「요재지이 속의 性」, 『중어중문학』 2008.12, p. 318.
寧莉莉, 「聊齋志異中的愛情故事與古代文人心態」, 『蒲松齡研究』, 2008-1.
魯迅, 『中國小說史略』, 臺灣 谷風出版社, 1987. p. 218.
盧興基, 『臺灣中國古代文學研究文選』, 人民大學出版社, 1988. p. 274.
蒲松齡, 『聊齋志異』, 臺灣 大衆書局, 1981. pp. 39-263.
石育良, 『怪異世界的建構』, 臺灣 文津出版社, 1996. p. 148.
盛瑞裕, 『解讀聊齋志異』, 臺灣 雲龍出版社, 2000. p. 31.
蕭艾 等譯, 『白話聊齋』, 長沙 岳麓書社, 1998. p. 62.
鄢烈山 등, 『李贄傳』, 北京 時事出版社, 2000. p. 157.
于天池, 『中國文言小說叢論』, 寧夏人民出版社, 1994. pp. 189-190.
張稔穰, 『聊齋志異藝術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5. p. 241.
張俊,沈治鈞, 『清代小說簡史(上)』, 遼寧教育出版社, 1992, p. 93.
何滿子, 李時人, 『明清小說鑑賞辭典』, 浙江古籍出版社, 1992. p. 1208.
何天傑, 『聊齋的幻幻眞眞』, 江蘇古籍出版社, 1995. pp. 3-4.

Pusongling's Ideal Woman as Represented by Yingning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Yingning Compared with Other Female Characters in Liao Zhai Zhi Yi -

Choi, Byeong-Gyu

Yingning is probably the most beloved female figure created by Pusongling.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ingning. For the topic concerned, this paper would first investigate the various main female characters in Liao Zhai Zhi Yi and compare them with Yingning.

In Liao Zhai Zhi Yi, Pusongling quite unusually puts 'my Yingning' when refers to the leading female character. This is the only case in his novels and it indicates the author's special attachment to and love of this character. Some critics have noticed the importance and special meaning of Yingning compared to other characters created by Pusongling. This paper, however, would further probe in details the unique characteristics Pusongling has put to Yingning and the reasons why the author elevates Yingning to a special status.

Key words: Liaozhaizhiyi, Yingning, Pusongling, women, beloved, sex

최병규
소속: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주소: 안동시 송천동 388 중어중문학과
전화번호: 010-8416-0433
전자우편: choibgooky@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